

■ SUMMARY ■

Le Corbusier's Idea Behind His City Planning Works

by Cheong-Yang Boo



Le Corbusier not only had gifts for architecture, painting and sculpture but had distinguishing effects on building and city planning.

He was the first to urge complete separation of pedestrian traffic from vehicles by utilizing elevated highways and stilted buildings, and had set more importance on pedestrians than on motor vehicles. He has already been dead for four years. Now at the fourth anniversary of his death I have tried to write this article in the belief that we, architects and city planners, would get not a little beneficial information through studying his ideas and activities.

As I have mentioned above, as a fine architect and a celebrated city planner, he had produced not a few remarkable works in his field. In this article, I have studied, among others, a few of his representative works such as Contemporary City, Voisin Plan, Ville Radieuse, and Housing Design which had some effects on these works, and examined their conceptional background along with their effects on modern buildings and city planning. Modern skyscrapers with concrete structure, piloti and ribbon windows which are now being employed all the world over are the main products of his assertion fourty years ago that light, air and verdure should be in a building.

I understand from his suggestions that.

First: his works had shown his desire to seek positive altitude and order, and his affirmative view of lifetogether with his will to improve our human lifethese are the very things for us to learn from him.

Second: from the view-point of city function, his seperation of roadway from footway had settled the transportation problem.

Third: his city planning had also settled ground deficiency, thus by heightening with the proceeds of the saved ground price, we could have light, air, verdure and recreatiion facilities.

Fourth: from the view-point of city beautification, cities by his city planning are especially superb and charming, and his roof-gardens on top of skyscrapers had mad the settlement of city planning problems succesful to a great degree.

Le Corbusier의 사상

— 그의 도시계획작품을 중심으로 —

부 칙 량

1. 서 론

건축가 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도시계획가로서 현대 건축과 도시계획에 큰 공헌을 하였는 Le Corbusier는 고가고속도로(高架高速道路)와 지주건물(支柱建物)로서 도보교통(徒步交通)과 차(車)를 완전분리 시키자고 주장한 최초의 사람이었으며 도보통행자를 자동차 보다 우위(優位)에 두어 존엄하게 생각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건축 회화 조각등에 대한 재능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었으며, 거기다 그의 시인(詩人)적인 인간성과 아이디어를 정확 명료하게 표현하는 능력에 의하여 1925년의 *Espirit Nouveau*의 아름답고 정교한 *Cartesian Pavilion*을 위시하여 1955년 “론샬”의 “환상적인 교회당”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의 모든 건축물과 도시계획에 눈부신 영향을 주었다. 건축과 도시계획에 미친 그의 활동에 의한 영향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45년전에 그가 주장한 많은 기본 원칙중에서 “300만인의 도시”는 이 세계의 어느곳에서나 오늘날도 변함없이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다. Le Corbusier는 그의 전생애에 걸쳐 이러한 주장과 원칙을 변함없이 따라 갔었던 것이다.

1887년 Swiss의 Ra, Show de fon에서 태어난 Le Corbusier는 그곳 미술학교에서 공부한 후 Peret의 사무소에서 일하다가 1917년 파리에 와서 건축, 도시계획분야에서 지도적인 활약을 하였다. 그러다가 1965년 8월 17일 이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떠난지 어언 4년이 된다. 그러나 그의 4주기(忌)를 맞이한 오늘날 그의 생존시의 활동과 사상을 연구함으로써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필자의 보람이라 하겠다.

Le Corbusier는 나이 17살 때에 최초로 하나의 Villa를 설계 하였다.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은 그는 19살때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중앙유럽, 소아시아, 스페인, 그리스 등으로 단신 수학여행을 떠났었다. 젊은 청년으로서 파르테논신전의 기둥을 만져본 그는 비례와 균

형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그는 「강의하는 책만으로서서는 진실을 얻을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그는 노트에다 그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써 놓았다. 「너의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실측하여 보고, 또 눈으로 볼 때까지는 믿지 말어라」라고. 그는 여행중에 체험한 경험과 본 바 그대로의 사실을 수백장의 스킷치와 도면으로 그려 모았다. 그는 「연필에 의해 한번 기록된 인상 그것은 영구히 생각키게 되고, 또 영구히 보존되며 명심하게 된다. 카메라는 게으른 사람들의 도구다. 자기가 관찰 하고져 하는 것을 기계의 힘을 빌려서 보는 사람은 가장 게으른 사람이다. 자신이 그려보고 자신이 선을 그어보고 자신이 보물을 조절하여 보고 표현을 구성시켜 보고, ……이렇게 하면 결국 영감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기록하여 놓았다. 이와 같이 생각한 그는 눈에 띄는 사물의 기하학적인 형태나 심지어는 밝나무뚝의 극적인 구성이나, Greek Island Chapel의 유연성, 또는 하나의 전도시(全都市)에 대한 영상상에 이르기까지 그가 흥미있게 느꼈던 광범위한 여러 사상의 형(型)과 색(色), 아이디어등을 스킷치북에다 스킷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스킷치북에 담겨 놓은 영감에 대한 인상을 그의 전 생애동안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었는 것이다.

2. 지주건축 (支柱建築)

Le Corbusier가 파리의 Peret형제 건축사무소에서 보낸 1908년 부터 1909년 까지의 15개월 간은 건축과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사상이 기본원칙으로 굳혀져 가는 주요한 시기였다. 한편 파리의 Franklin Street에다 9층 아파트건물을 지으려고 할때인 1903년에는 건축계에 새로이 철근콘크리트가 채용되기 시작할 무렵이었으므로 Peret는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와 재료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전심전력하고 있었다. 이때 나이 21살된 Le Corbusier는 바로 그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던 무렵이었다. 그는 모든 건물과 도로를 지면에서 들어 올림으로써 도시지표(都市地表)에서 도보인(徒步人)이 자유로히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고져, 꿈꾸고 있

었고, 또 이것을 발전시키고 있었든 참이었다.

그러한 꿈은 결국 실현되어 퍼럭릿드처럼 생긴 석조 건물 대신에 마치 나무가 무거운 가지와 잎덩이를 공중에 높이 치켜들고 있는 것처럼 내부기둥에서 4방이 Cantilever로 된 경쾌하고 우아한 철근콘크리트 고층 건물을 설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건물 주위와 밑의 지면은 보행인(步行人)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전 지면은 광활한 공원으로 만들수도 있게 되었다. 여기 저기에서 일하든 그는 나이 30살때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 일하였고, 1930년에는 드디어 현대건축과 도시계획의 명성있는 선구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는 건축과 도시계획을 따로 따로 분리하여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가 「건축이란 큰 집단에 빛을 모으는 명공(明工)들의 정확하고도 장엄한 유희다」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흥미 있는 말인 것이다. 이 말처럼 그는 외부공간과 건물과를 연결시키는 방법이나 외부공간의 양(量)과 건축전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처리하는 방법 등에 특히 주의하였든 것이다. 즉 건물의 외부관계를 중요시하였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건축가나 도시계획가에게 특히 의의있는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러한 점은 오늘 날의 도시계획에서도 중요요소로서 중요시하는 점인 것이다.

3. 300 만인의 도시

위와 같이 건물의 외부를 중요시 하였든 Le Corbusier 는 도시주택의 분산적(分散的)인 단위주호형태(單位住戶形態)와 집합적(集合的) 아파트형태에 대하여 「널리 교외(郊外)에 분산되어 있는 소주택(小住宅)은 현대에 있어서의 막대한 낭비이며, 이에 의하여 가정주부는 가사에 시달리고, 시재정(市財政)은 썩비서비스의 유지에 다액의 부담을 가지며, 근로자는 통근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한편 인간은 상호원조라든가 방어, Energy의 절약이라는 점에서 서로 서로 모일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또 「오늘 날과 같이 분산된 주택상항에 있는 것은 도시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고 그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집합 시킨다는 것은 현대 기술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현대의 도시계획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자연과의 교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기계문명에 가해진 가장 긴급한 과제일 것이다」라고 말 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잃어버린 자연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 수직적 도시에는 자연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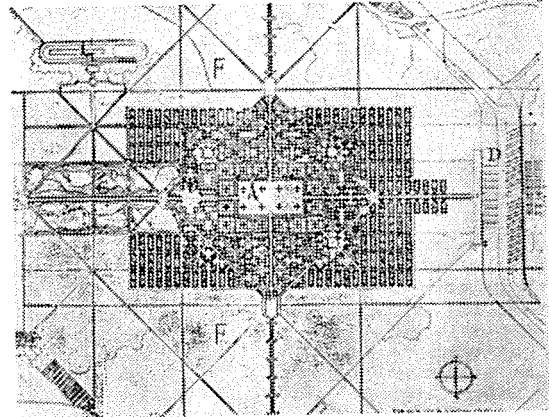


그림 1. 300만인의 도시계획
내부 평면 UNE VILLE Contemporaine PARIS, 1922
A: 도심업무지구 B: 공관지구
C: 차르탕, 앙그레 D: 공업역-비즈니스구
E: 주거지구 F: 보존지구

조화가 있고 도시나 농촌에 있는 Community 정신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 하였다. 그는 이 Community에서는 사람은 다시 인간적인 규모로 되어 사람들은 “자연환경”속에서 다시 주도권을 갖게 된다. 기제는 도시의 주인공이 아니라 단순한 생산자인 것이다. 도시계획가는 적합한 위치에 수직적 도시를 만들것이다. 차(車)는 전용도로를 달리고, 지면은 다시 보행자에게 개방된다. 그리고 신체(身體)와 정신(精神)은 태양빛과 대지(大地)와 신록(新綠) 속에서 꽃피워 질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와같이 Le Corbusier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로써 고층건물을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채용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주장을 표현한 그의 최초의 도시계획 작품은 1922년 11월 Salon d'Autonne 전람회에 출품한 300만인을 위한 La Ville Contemporaine 계획이었다.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도시는 광대한 공원으로 되어 있고, 도시의 중앙부에는 초고층(超高層) 건물들이 서 있으며, 주위에는 아파트건물들이 서 있다. 도보자(徒步者)와 교차되지 않은 고가도로는 자동차통행을 위해 3단계로 분리되어 있어서 각 자동차의 속도와 종류에 따라서 분리 이용되도록 되어 있다. 90도와 45도로 뻗친 십자형 도로에 의하여 중심부로 신속히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십자형으로 분할된 이 도시는 우회하는 외각 고속도로망에 의하여 교외로 연결된다. 모든 건물은 지주(支柱)로 지지되어 전지표면(全地表面)에서 들어올려져 있기 때문에 도보자는 자동차와 만나지 않고 어찌든지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지표면은 울

용허 조원(造園) 되어 있고, 학교, 레스토랑, 카페, 크럼, 청소년회관등 여러종류의 시설과 호외(戶外) 오락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이상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여 보면 도시는 도심업무지구와 공관지구(公館地區) 자—르단, 앙그레, 공업서비스지구, 주거지구, 보존(保存)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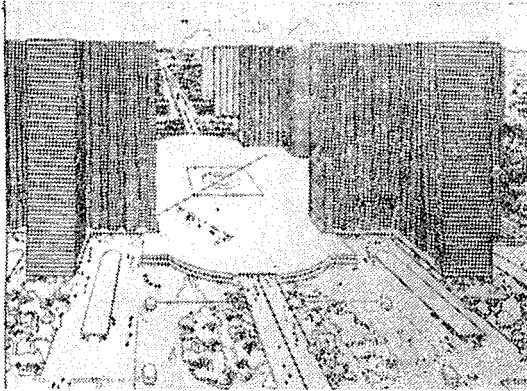


그림 2. 300만인의 도시계획안
도심부 4동의 초고층 Building과 중앙역

도심업무지구는 50층 또는 60층 되는 24개의 초고층 건물군으로 되어 있고, 십자형의 평면이다 각 건물은 극히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24만 내지 120만명의 취업인구와 40만~60만명의 거주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인구밀도는 3,000 인/ha 녹지율(광장, 레스토랑, 극장등을 포함) 95%이다. 중심부에는 중앙역(中央驛)이 있다. 옥상(屋上)의 20ha는 공항(空港)이고, 중 2층에는 폭 40m되는 2개의 고가고속자동차도(高架高速自動車道)의 교차점이다. 지상층(地上層)은 큰 홀과 각종 교통기관의 표파는 곳, 지하 1층은 지하철이고, 지하 2층은 교외철도, 지하 3층은 원거리철도(遠距離鐵道)로 되어 있다. 고층건물의 1층 및 그주위는 공원, 광장, 카페, 레스토랑, 고급품점, 각종의 홀, 극장, 주차장등이 있다. 공관지구는 업무지구의 서측(西側)의 거대한 시가지공원(자르당, 앙그레) 건너편에 위치하고 각종 공공건물, 공공시설, 미술관, 시청사, 대학 등을 배치하고 있다. 「자르당·앙그레」는 도심부에서 연속되는 큰 공원으로서, 폭이 수마일인 그린벨트이며 여기에는 각종의 스포츠시설, 자동차경기장, 경마, 경륜, 스타디움, 육상경기장, 플장등이 있다.

공업서비스지구는 도심부의 동쪽 그린벨트 건너편에 있으며, 화물역(貨物驛), 창고, 공업지구가 있다.

주거지구는 중앙업무지구의 4방에 위치하고, 메즈넷트형 6층의 ㄷ자형 연속형과 12층 ㄱ자형의 2종류의 아파트로 되어있다. 거주 인구 60만인 밀도는 ㄷ형지구가 3,000 명/ha, 녹지율 85%, ㄱ형지구가 305 명/ha, 녹지율 45%로 되어 있다. 주택의 창은 모두 넓다란 공원에 면하도록 되어 있다. 또 각 건물간의 충분한 간격과 방위, 잘 가꾸어진 조원(造園)은 각 주택에 햇빛과 공기, 그리고 녹(綠)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것이다.

보존지구는 도시주변의 광대한 임야(林野)로서, 이곳은 장래 발전의 예비지이고, 건축은 일체 금지된다. 그러나 대규모적인 공항(空港), 스포츠시설만은 설치한다. 시(市) 당국은 이것을 매수하여 장래의 확고한 계획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4. 파리도심부의 재개발계획

1925년 파리의 중심부지역 개조계획안을 “Plan Voisin”이라 하여 제안 하였다. 이것은 파리중심부 약 1,000에이커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업무지역과 옛 저밀도 스텝주택지구를 대신하여 고밀도(高密度) 주거지구를 제안한 것이다.

이 계획은 파리의 중심지역을 옛날처럼 경제적으로 건전하고, 아름답고 사랑받는 곳이 되도록 복원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는 「파리의 시가지 중심은 다이아몬드 보고(寶庫)다. 그 중심부는 다른 어느곳에 재건(再建)해서는 안되고, 중심부 바로 그곳에 재건해야 한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 모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계획은 가로(街路)의 기능과 미(美)에 대해서 이론적인 고찰이 되어 있었다. 그 당시의 도로에 대하여 「현재의 도로는 아무리 잘 포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점이 있다」고 밝혔다. 즉 「도로 양쪽에 높이 솟은 고층건물의 벽은 깊은 계곡을 만들게 되고, 좁은 통로는 빠른 속도로 움



그림 3. 파리중심부 재개발 계획안
Plan Voisin de Paris 1925-29

직이는 운반기구로 가득찼다. 따라서 각 교차로에서는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었고, 또 그들이 호흡하는 공기는 더럽혀 있다. 영원한 도보주의자(徒步主義者)를 위해 잘 닦아 놓은 골목길ियो. 수세기(數世紀)에 걸친 유풍이며, 이미 기능을 잃은 “울겐”을 잘못 누르는 소리과 같은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새로 계획한 파리 중심부의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 주위에 펼쳐 있는 광활한 풀과 수목의 그늘속에서 걸고 있을 것이다. 공기는 맑고, 시원하며, 소음(騷音)은 거의 없다. 건물이 어베 있느냐고요? 보라! 매력있게 하늘로 뻗어 가는 나무가지 사이를 통해 저 너머를 보라! 지상의 어느 첨탑(尖塔)보다도 높이 치솟은……넓다란 간격으로서 있는 저 수정탑을 보라! 지면에서 고정되지 않은채 공중에 두둥실 떠 있는 듯……여름의 뜨거운 햇빛에 반짝이는……겨울의 희색빛 하늘아래 부드럽게 빛나는……석양(夕陽)에 신기하게 찬란한……이 투명체 프리즘은 거대한 사무실 건물들인 것이다.」

이 건물들의 밑은 지하정거장이다. 사무소 건물의 외관은 밑에서 꼭대기까지 넓다란 유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거대한 건물의 구조는 별채 조적식 구조의 옛 양식을 찾아 볼 수 없음을 알수있다. 그 곳에서 볼수있는 것은 유리와 균형 뿐이다. 이들의 거대하고 장엄한 투명체는 침착하고, 웅대한 미관을 이루면서 그들의 머리를 서로 하늘 높이 치세우고 있는 것이다. 저 건너를 보라! 파리 중심부로 접속되는 고가고속도로의 지평선 넘어까지 뻗혀진 저 엄청난 주열(柱列)들……이들 초고층사무소 건물들의 지상 200m 높이 에 있는 광대한 옥상정원(屋上庭園)……거기에는 안락의자가 여기저기 흔들거리고, 또 여기저기 담소(談笑)하는 우리들과 키-타치며 춤추는 쌍쌍이 있지 않은가!」라고.

파리중심부에 실현시키려고한 이러한 사상은 공상적인 환상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이 계획안(計劃案)을 뒷받침하는 냉철한 계산근거가 있었다. 토지는 그 가치(價値)가 막대하게 상승될 것이며 따라서 정부(政府)는 수10억 프랑의 이익을 가질수 있게 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파리중심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은 부(富)의 원천(源泉)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것이며 옛날의 고식적인 좁은 계곡과 같은 가로는 이제는 너그려이 허용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5. 빛나는 도시 (The Radiant)

300만인의 도시를 발표한 후, 1930년에는 La Ville Radieuse(Radiant City)를 CIAM회에 발표하고 1935년

에는 이것을 책으로 출판하였다.

Le Corbusier는 건축 및 도시계획가는 기술자이기 전에 인간에게 물질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수 있도록 새로운 기제문명을 인류에게 이끌어 줘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빛나는 도시”에서는 토지에 대한 투기(Land Speculation)를 막고 시가지구성(市街地構成)과 발전을 보다 쉽게 이룩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도시의 모든 토지는 공공성을 지녀야 된다고 주장하였던것이다. 기타 중요사항으로서는 개개건물의 구조방식을 새로운 현대건축방식 즉 지주(支柱)와 옥상공원(屋上公園), Open Plan, Ribbon Window, 자유로운 외관 등 새로운 방식으로 그 방향을 바꿔 놓았다는 것이다. 지주(支柱)는 건물 밑을 연속되는 공원으로 만들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고 옥상공원에 의하여서는 건물로 덮혀있는 지표면을 되찾을수 있으며 회합, 운동, 사교, 오락행위등을 할수있는 장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던 것이다. Open Plan에 의해서는 간막이 벽의 배치가 자유로워 졌으며, Ribbon Window는 넓은 유리창을 통하여 건물내에 균일한 태양빛을 들여올수 있게 하였다. 외벽은 의력에 대해 지지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장상(意匠上)의 필요에서 외관을 자유로이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Le Corbusier는 이상과 같은 구조상의 새로운 사실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성과 새로운 도시미(都市美)를 창조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6. 기타의 도시계획 작품

1925—29년의 Voisin계획에 이어서 1929년에는 Janeiro 계획과 1930년에는 Algiers 계획을 하였다. 이 두 계획은 곧 도시계획의 고전(古典)이 되었다. 이 계획에서 Le Corbusier는 길이가 수 마일되는 곡선판상(曲線板狀) 주택동(住宅棟)을 건설하고, 업무지구는 해변에 다 건설 하였던 것이다. 휴양지(休養地)는 암벽(岩壁) 위 높이 100m되는 고가고속도로로 연결시키고 그 도로 밑은 18만의 인구가 살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1934년에는 북아프리카의 누무르(Nemours)시 계획을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주거지역에다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아파트 18동을 건립하였다. 이 아파트군은 대전후 그가 설계하여 건립한 저 유명한 Marseilles의 Unite'd' Habitation 주거단위의 예표(豫表)가 되었던 것이다.

1945년에는 2차대전으로 파괴된 프랑스 동쪽 소공업 도시 Saint-Die의 재건계획안을 만들었다. 이 계획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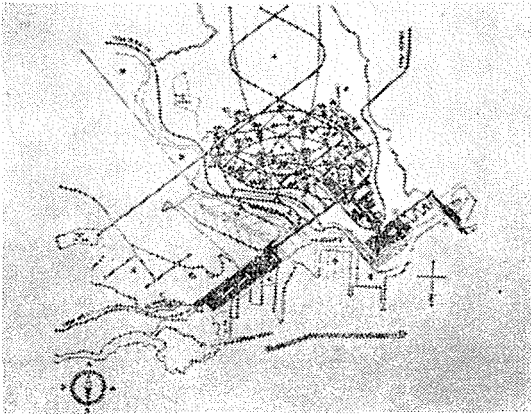


그림 4. 누무—르 계획
Urbanisation de La Ville de Nemours Afiuqe, 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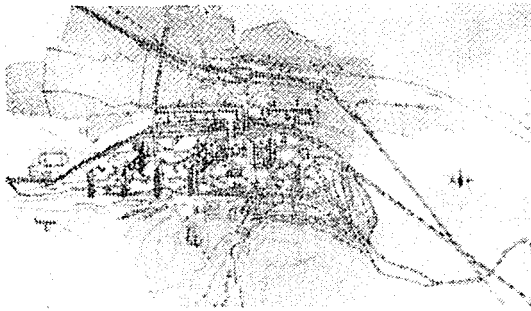


그림 5. Saint Die 계획 1945

후일에 “찬디가—르계획”의 예표가 된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시내의 초고층(超高層)건물과 교외의 개인주거지와의 균형, 도로계획이 현실적으로 되어있는것으로서 도로는 고속, 일반 보행자 전용의 3단계로 계획되어 있는것이 특징이다. 공공건물은 서로 조심성있게 연결되어 있고 2개의 아파트군은 업무지구의 양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강(江) 건너쪽의 공업지구는 도시의 업무지역과 주거지역에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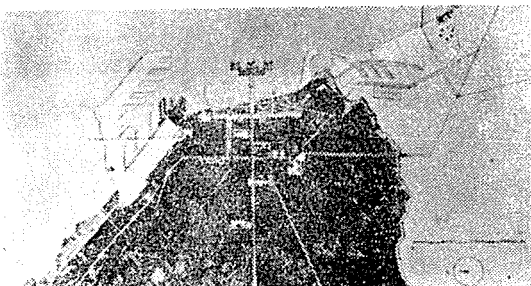


그림 6. 브에노스 아이레스 계획.
Plan Directure pour Buenos-Ayres 1938.

1946년~1947년, 그는 St. Gaudens 와 La Rochell~Palice 계획을 하였고, 2차대전 직전과 직후에는 남아프리카의 “Grand design” 계획을 비롯해서 브에노스·아이레스, Sao Paolo, Montevides, 보고타, Lima, Medellin 기타의 도시계획등 많은 일을 하였는데 이들 모든 도시에는 Le Corbusier의 도시계획기본원칙(都市計劃基本原則)과 사상이 잘 실현되어 있는 것이다. Brasilia의 도시계획은 그것이 비단 그의 제자 Lucio Losta와 친구 Oscar Niemyer의 작품일망정 대부분이 Le Corbusier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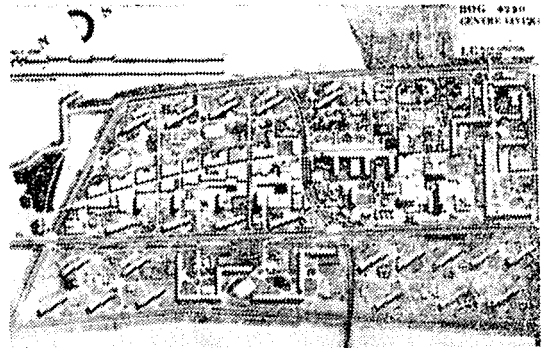


그림 7. 보고타 계획
Plan D'urbanisation de Bogota 1950.

Le Corbusier의 최후작품은 파키스탄과의 영토분할에 의하여 생긴 인도 Punjab주의 수도 찬디가르(Chandigarh) 계획이다. 인구 15만명(장래계획 50만명), 3,600ha의 이 도시는 고속도로에서 산보(散步)길로 이르는 7종류의 도로(V₁—V₇)에 의하여 조직화된 각 주거(住區)로 되어 있다. 동쪽 높은 지역 약 90 ha 부지에 정치센터, 중앙에 상업과 시민센터, 북쪽의 하상(河床)에 연하여서는 교육, 문화, 후생을 위한 공원지구가 있고 남쪽에는 공업지역이 있다. 정치센터에는 의사당 주청사, 주장관관저, 고등법원, Sign, 기념비, 물의 물 등이 있다. 이들 각종 건물도 Le Corbusier 에 의해 설계된 것이다. 주거단위(住區單位)는 가로 세로로 교차되는 고속도로 V₃에 의해 구획된 면적 100ha, 1,500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내부에는 필요한 공공시설을 갖춘 자족적인 도시단위(都市單位)인 것이다. 또 이 주거(住區)를 가로 지르는 저속혼합도로(低速混合道路)로 V₄에 연하여 상점과 사무소등이 있어 이곳이 활동과 오락의 중심이 된다. 이에 대해서 세로로 달리는 유보도(遊步道) V₇을 갖는 대상공원(帶狀公園)은 교육과 스포—츠의 중심이고, 이곳에는 학교, 유치원, 주거(住區)센터등이 있다. 각 주택은 환상저속도로(環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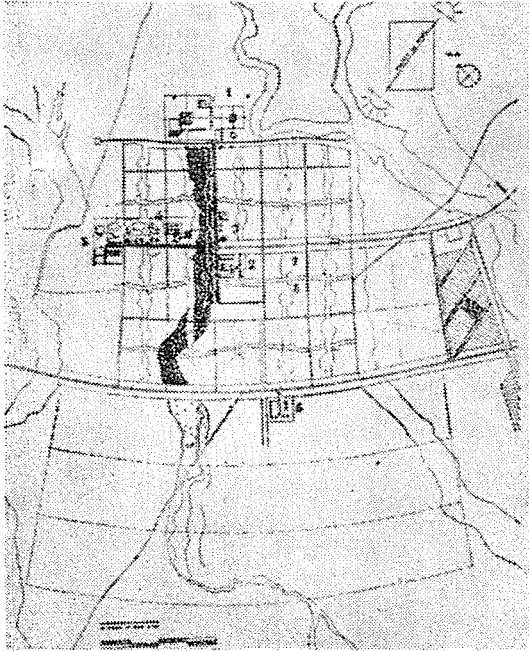


그림 8. 찬디가—르 계획
Master Plan, 1951

低速道路)로 V_5 에 의한 녹지(綠地)속에 여러형식으로 건립 된다.

이와 같이 이 찬디가—르 계획은 도시에 우수한 조직을 가져다 주는 행정적인 제안이라고도 말할수 있겠으며 도시의 자유로운 활동과 성장을 약속하는 계획이라고 말할수 있겠다. 아울러 이 계획이 동양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은 동과 서의 정신적인 융합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7. 주거건축 (住居建築)

Le Corbusier의 개인 주택건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은 파리 근교의 Poissy Surseine 에 세운 Villa Savoye(1929~30)였다. 그 주택은 그가 좋아하는 3위 1체 즉 지주(支柱), 곡선, 조각지붕이 시적(詩的)으로 표현되어 있었는 것이다. Peter Blak이 「이 세상의 어느 나라에 다 지은 주택을 막론하고 현대주택의 반수(半數) 이상은 Le Corbusier의 주택작품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고 말한 것처럼 현대주택 건축에 미친 Le Corbusier의 영향은 참으로 큰 것이다. 대단위 주거 설계분야(大單位住居設計分野)에 있어서는 337호의 주택에 약 1,600 명을 수용하는 “말세이유”의 Unite d' Habitation을 들수 있다. 아름다운 격자 루—바와 발코니가 있는 이 건물은 가족수의 변화라든지, 독신자,

노인등에도 적응될 수 있는 융통성이 있게 설계되었다. 또 공동생활 양식의 변화와 부유한 생활 및 빈곤한 생활에도 항상 적응될수 있을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기밀성을 가질수도 있게 설계된 작품이다. 17층 건물의 9층에는 상점가가 있고 방문객(訪問客)을 위한 호텔과 우체국이 있으며 옥상에는 150명을 수용하는 유치원이 있고, 체육관, 수영 Pool, 일광욕장, 공동오락장과 정원등이 있다.

Le Corbusier는 아파트건물에는 언제나 그러한 공동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는데, 1940년과 1950년의 말세이유, Nantes, 기타 여러곳에서 이러한 아파—트가 건립되었는 것이다.

영국의 London County Council Architects Department에서 설계한 1867호의 주호와 많은 공동시설(학교, 상점, 도서관, 클럽실, 커뮤니티센터)을 가진 London Roehampton Housing Development는 대단위 주택분야에서 Le Corbusier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가장 좋은 작품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기타 미국에 있는 작품으로는 Harvard 대학의 Visual Art's에 세운 Carpenter Center나 The United Nations Complex, 만하탄, 파—크어베뉴에 있는 Lever House 등과 Yale 대학의 Art and Architecture, Boston의 New City Hall등과 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는 Jose Luis Sert가 설계한 Boston과 Cambridge 시 도시계획을 들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품은 역시 Le Corbusier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작품들인 것이다.

8. 고찰 (考察)

이상으로 Le Corbusier의 건축과 도시에 대한 활동과 사상을 조사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의 활동과 사상에 도 약간의 결점을 들수 있음을 알수 있다.

첫째는 Le Corbusier의 이상도시(理想都市)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동차의 사용과 주차장(注車場)문제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자동차는 오늘날 도시나 지역발전에 있어서 이미 주인공이 되어 버렸으며 이 자동차가 우리에게 “편리”라는 것을 제공하여 주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오랜 세월동안 우리와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Le Corbusier는 넓다란 도로와, 빠른 속도의 자동차를 바로 도시중심부에까지 끌어들이었다. 따라서 이 넓다란 도로는 도시민을 서로 격리하게 될 것이다. 또 직선과 사선의 간선도로(幹線道路)는 도시를 3각형과 4각형으로 분할하여 놓을 것이며 이는 결국 도시민과 건물과의 친근감을 약화시켜, 놓을 것이라고 볼수 있다. 주차장문제는 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Le Corbusier의 계획안에서 자동차를 시가지의 공원에

다 주차시키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에 그가 제안한 이상도시와 똑같은 도시를 오늘날 건설한다고 하면 오늘날의 자동차량의 증가때문에 자동차들은 지하나 혹은 곱게 가꾸놓은 공원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만 될 것이다. 따라서 Le Corbusier의 이 계획안은 자동차 대수를 고려하여 그때 그때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시행상의 문제이다. Le Corbusier의 계획안과 같은것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안에 얽혀 있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때문에 이 지상(地上)에다 그의 계획안을 실현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을 길이 없을 것이며, 또 토지소유권에 따른 법적구조와 그의 복잡성을 조절하지는 못할 것이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도시 계획안이 시민들에게 이해가 되고 또 관계관청에서 지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것이다. 이와같은 사회적인 조건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소중히 아끼는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세째로는 어른이나 어린이를 막론하고 아무도 고층건물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6살되는 어린이가 지상 6층이나 12층에서 살도록 계획된다는 것은 그다지 환영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네째는 사회적시설에 대해서도 분석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다. 「인간에게 녹(綠)을……」이라든가 「대지(大地)는 보행자에게 개방된다」라는 주장에도 보다 깊이 있는 제안이 필요될 것이다.

다섯째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300만인의 도시」에서 주거와 공업지역 및 중심지역과의 관계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산업인구구성(産業人口構成)등에는 논하여지지 않으므로 어느정도의 인구가 공업관계에 종사하는지 알수 없으나 인구 300만명의 도시에서 도시의 동단(東端)에 계획된 선상(線狀)의 공업지역으로서 충분할 것인가? 또 1개소만으로 공업지역을 집중시키는것이 과연 타당한지 분석이 충분치 않은듯 하다.

9. 맺은말

40년전 빛, 공기, 녹(綠)을 찾자는 Le Corbusier의 주장에서 생긴 철근콘크리트구조, 뼈로더, 넓은 면의 유리창, 리본 윈도우(Ribbon window)를 가진 고층건물 Open Plan, 옥탑(屋塔)등은 오늘날 전 세계의 건축과 도시계획부분에서 훌륭히 채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Le Corbusier의 사상의 타당성은 이미 브라질리아나 찬디가—르, 미국의 몇몇 재개발계획에서나, 영국, 스톡홀름, 노틀담, 말세이유, 난테, 러시아 등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입증(立證)되었다. Le Corbusier의 사상은 또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여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주택형의 관점에서 특히 젊은 독신자나 젊은 부부는 편리하기만 하면 고층 아파트건물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능면에서 보행자와 차도(車道)의 분리는 수송문제를 해결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또 그러한 분리는 인구과잉팽창에 있어서 토지이용과 교통문제를 3차원적으로 해결토록 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인구밀도는 지표면적과 공간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고, 또 서로 치열한 소유경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쟁행위는 지표면(地表面)을 보다 극소 규모로 분할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새로운 도시는 각 건물집단을 위한 고속철도나 혹은 형태와 속도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킬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교통수단을 가진도시인 것이다.

세계 경제적 견지에서 Le Corbusier의 도시는 토지의 부족과 고가(高價)라는 점을 해결하였고 반면에 쾌적한 빛과 공기와 녹(綠) 그리고 오락시설을 갖추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곳의 고층건물은 순전히 이러한 경제적 견지에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네째 도시미(都市美)라는 점에서 볼 때 Le Corbusier의 도시는 특히 그 중심부지역에서 매혹될 정도로 아름답다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초고층 도시공원은 장래 도시계획문제의 새로운 해결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었고, 또 장래의 가능성을 약속하여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Le Corbusier의 해법은 원리와 작품일 망정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될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보다 잘 연구하고 다듬어서 인간의 생활을 보다 즐겁고 쾌적하게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Harry Antoniades Anthony: Lecorbusier: His Ideas for city, J.A.P. Vol. XXXII No.5
 佐佐波 秀彦외2인: Lecorbusier (國際建築 第33卷 8號)
 Lecorbusier: Maniere de Penser L'urbanisme(坂倉準三 譯)
 Steen Eiler Rasmussen: Experiencing Architecture.
 윤정섭, 이용구: 도시계획
 정인국: 근대건축론

(필자 전남대학교공과대학 조교수)